

돌아온 축제 시즌...광양시 가을축제 안전성 확보 만전

시정 공유 읍·면·동장 회의...사고 예방 각별한 주의 당부 시민의 날 행사·K-POP 페스티벌 개최 등 준비 상황 점검

가을 축제 시즌을 앞두고 광양시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광양시는 지난 20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본청과 읍면동 간 시정 현안을 공유하는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인화 시장은 개막을 앞둔 각종 축제에 대해 대형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시장은 축제 만족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당부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즐길 거리를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본청·과는 읍·면·동에 필요한 시정 주요 당부사항 및 홍보 내용을 전달했고, 읍·면·동은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했다. 보고에 이어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청에서는 ▲제30회 시민의 날 행사 ▲제1회 광양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 운영 ▲제4회 광양 K-POP 페스티벌 개최 ▲2024 광양-린츠 국제 미디어 아트 교류전 개최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특감) 무료 예방접종 등의 주요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읍·면·동에서는 ▲제20회 광양 전통숯불구이 축제 ▲시민 참여 클린데이 운영 ▲2024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제20회 광영가야산 문화제 등 자체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과 읍·면·동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현안을 함께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시가 지난 20일 읍면동장 회의를 갖고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김순호(맨 왼쪽) 구례군수가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가 열린 구례실내체육관을 찾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 '흙 살리기 박람회' 1만여명 방문 성료

폭우 속 3일 일정 안전하게 마무리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 의지 호응

구례군은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과 흙을 주제로 열린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가 우천 속에서도 1만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도와 구례군이 주최하고 탄소중립흙살리기박람회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와 군민과 도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첫 박람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박람회 기간 강감작스러운 폭우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비가림막 설치 등으로 박람회 운영에 큰 차질 없도록 철저한 대응을 보였으며, 일부 야외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개막식은 "흙을 살리고 미래를 구하는 구례"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실천과 생태농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구례군의 의지를 담

아냈으며, 주요 내빈의 흙 손도장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주최관은 흙이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인포그래픽과 영상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관람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기업관에서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기관과 기업이 탄소 저감 농업기술과 우리나라의 토양 단층 관련 전시를 선보였으며, 구례 농특산물 판매·홍보 공간에서는 40여 개의 생산, 가공 단계가 산수유, 밤 등 구례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렸다.

이와 함께 토양전문가, 청년농업인, 푸드테라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와 한국화 화가인 류재춘 작가의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천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은 흙을 살리고 녹색 미래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향·색·맛 유자토피아 만나요”...11월 7~10일 ‘고흥유자축제’

풍양면 한동리 일원 다양한 행사

고흥군이 국내 최대 유자 주산지인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제4회 고흥유자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11월! 고흥은 유자토피아'라는 슬로건 아래, 축제장을 '지상낙원'으로 구성해 유자향, 색, 맛, 소리, 감각 등을 주제로 한 4개의 유토피아 공간을 연출하게 된다.

이 공간은 지(地)-유자밭, 상(嘗)-먹거리, 낙(樂)-공연, 원(圓)-힐링 등산으로 구성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개막식 축하공연, 드론쇼, 불꽃쇼, 유자 퍼레이드 등 화려한 볼거리가 마련되

며, 유자 테마파크, 향토음식관, 유자차 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유자밭 야간경관 조명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어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 퍼레이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지역 주민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분리수거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축제 운영을 실천할 계

획이다. 군은 또한, 고흥 유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상표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자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예술 작품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흥유자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제4회 고흥유자축제는 유자를 매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이 고흥을 방문해 유자의 향기를 가득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부제 뽑아주세요”

다음달 6일까지 선정 설문조사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슬로건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와 어울리는 부제를 뽑아주세요.”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활용할 부제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박람회 주제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고, 브랜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전문가와 조직위 직원들로부터 모집한 50개의 부제를 조직위 자체 1차 심사를 통해 30개로, 2차 심사서에서 10개로 줄여 설문대상으로 선정해 누리집에 올렸다.

설문 부제는 '너와 나의 섬 이야기' 등 섬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표현하는 10가지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여수시청 누리집 배너 링크 접속 또는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 소통·전남 누리집(https://sotongin.jeonnam.go.kr/) 설문광장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시민 설문조사,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설문대상으로 선정된 10개의 부제이다. ▲너와 나의 섬 이야기 ▲지구의 푸른 심장, 섬에서 뛰다 ▲섬이라는 작은 지구 ▲그 섬에 가고 싶다 ▲지구, 섬으로 말하다 ▲지구의 가치, 섬



여수세계섬박람회 포스터.

에서 찾다 ▲섬, 그 일상으로의 초대 ▲섬이 보내는 세상의 해답 ▲조화와 공존, 함께하는 우리 ▲숨, 섬, 그리고 삶.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27~28일 보성공설운동장서 녹차수도 '다~청년 페스티벌'

보성군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녹차수도 보성 '다~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스포츠대회, 도전 보성알기, 댄스&밴드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부대행사로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와 볼풀장, 청소년·가족을 위한 청년존, 청소년존, 가족존 등의 체험 마당을 운영한다. 청소년존에는 소방관·경찰관 등 직업체험 부스, AI(인공지능)드론과, 반려동물학과, 임상병리학과가 참여한 진로체험, 인생네컷, 격정인형 만들기, 타로 체험, 컬링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 콘텐츠가 마련된다.

축제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문화축제는 보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려 즐기고, 여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청소년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광양 미래 여는 청년들의 축제 열린다

28일 청년의 날 기념 행사

가요제·명사 초청 토크콘서트

'2024년 광양시 청년의 날' 행사가 오는 28일 광양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열린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청년연합회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청년의 권리 보장·청년정책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된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법정 기념일이며, 광양시의 기념행사는 올해로 3번째이다. '광양시 미래를 여는 청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후 1시 청년가요제와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의 식전 행사에 이어 기념식 본행사를 갖는다. 또 청년친화도시 선포식을 갖고 조경기수 축하공연으로 이어진다.

식전행사 '청년가요제'에서는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 가득한 청년들의 노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크콘서트(오후 2시)'에는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 씨와 함께 청년창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본행사인 기념식에서는 청년들의 축하공연, 청년정책 발전 유망자 표창, 샌드아트를 활용한 '청년친화도시 광양' 선포식이 계획돼 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가수 김장훈을 포함한 5팀(식보이, 견지, DJ ONE, 조아연씨)이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뜨거운 축하공연을 펼친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 ▲플리마켓 ▲체험·홍보 부스 ▲축하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영 광양시 청년자리과장은 "청년의 날 행사는 광양시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이 함께 즐기고 호흡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기획했으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양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990원

올해보다 2.61% 280원 올라 시 소속 근로자 1500명에 적용

여수시의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990원으로 결정됐다.

여수시는 최저임금 인상률·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90원은 올해의 생활임금 시급 1만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1만30원)보다 960원(9.58%) 오른 것이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 6,910원으로, 올해(223만 8,390원)보다 5만 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 20만 640원 많은 금액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수시는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27~29일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곡성 대항강 자연휴식공원

'제24회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곡성군 석곡면 대항강 자연휴식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코스모스 향기에 추억·낭만·사랑을 싣고'라는 주제로, 형형색색의 코스모스와 여우꼬리 맨드라미·속근 사투비아 등 대항강변과 어우러진 가을꽃을 만나볼 수 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방문객들과 함께 참여하는 파크골프와 미니축구 등 미니운동회를 진행하고, 노래자랑에 참여해 본인의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는 '백세미 비빔밥 퍼포먼스'다. 곡성군의 특산품인 누룽지 향이 가득한 백세미로 밥을 짓고, 초대형 비빔밥을 만들어 방문객들과 함께 시식하게 된다. /곡성=김대수 기자 bigkim2@kwangju.co.kr

이 외에도 다슬기 잡기와 영무새 교감 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마리오 여왕 만들기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인생네컷 사진관과 페이스 페인팅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저녁에는 '가을 음악회'가 열린다. 27일에는 미스김·황민호 등 초청 가수 공연과 통기타, 전기바이올린 연주가 펼쳐지고, 28일에는 현진우 가수 공연, 마지막 29일에는 서주경 등 초청 가수가 방문객들과 함께 가을밤의 낭만을 즐길 예정이다.

석곡 코스모스음악회 추진위원회 오봉순 위원장은 "제24회 석곡코스모스음악회를 찾는 관광객이 대항강변의 시원한 바람과 코스모스,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